

살다 보면 때로는 예상치 못한 슬픔이나 시련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새끼를 잃은 어미 늑대와 절벽에서 뛰어내려야 하는 아기 흰뺨기러기처럼요.
하지만 푸시킨의 시는 우리에게 다정하게 속삭입니다.
"세상 모든 건 잠시 머물 뿐, 언젠가는 꼭 지나가는 것"이라고요.



© 도휘경

이 활동지는 가혹한 자연의 섭리 속에서도 사랑을 이어 가는
주인공들의 마음을 가만히 들여다보며, 삶에 지친 나를 따뜻하게 안아 주고자 마련하였습니다.
잠시 멈춰 서서 그림 속 풍경을 바라보며, 당신의 마음이 들려주는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보세요.

가혹한 자연의 섭리 속에서 새끼를 잃은 어미 늑대는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높은 절벽에서 뛰어내려야 하는 운명 앞에서 아기 흰뺨기러기는 어떤 다짐을 했을까요?





북극곰의 다양한 책놀이를 만나 보세요.

아래의 장면들에서 엄마 늑대와 흰뺨기러기는
먼 하늘을 바라보며 각각 어떤 감정을 느꼈을까요?

장면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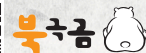


엄마 늑대 :

장면 2.



흰뺨기러기 :



북극곰의 다양한 책놀이를 만나 보세요.

『삶이 당신을』은 푸시킨의 시 「삶이 당신을 속일지라도」를 바탕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본문에서 지금 나에게 가장 필요한 구절을 찾아 적어 보고, 그 이유도 생각해 보세요.

삶이 당신을

푸시킨

삶이 당신을 속이더라도
슬퍼 말아요 화내지 마요

속상한 날을 받아들여요
행복한 날이 올 테니까요

당신 마음이 내일 향해
그저 지금은 너무 힘겨워

세상 모든 건 잠시 머물 뿐
언젠가는 꼭 지나가는 것

소중하고 또 소중한지요
지난 시간도 모든 일들도

가장 마음에 와닿는 구절

이 구절이 내 마음을 두드린 이유

“세상 모든 건 잠시 머물 뿐, 언젠가는 꼭 지나가는 것”이라는 시 구절처럼,
요즘 삶이 나에게 건네는 말이 있나요?

가만히 눈을 감고 떠오르는 말을 아래 박스에 남겨 보세요.



북극곰의 다양한 책놀이를 만나 보세요.